

## 미국에서 한국어 수업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

올리비아 헤르난데스는 중학생일 때 한류를 처음 접했습니다. 한국 **대중음악**과 드라마 등이 인기를 끌던 때였습니다. 드라마 ‘내 이름은 김삼순’과 클래지콰이의 노래를 즐기면서, 그녀는 스스로 한글을 배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.

올 해, 헤르난데스는 UCLA대에서 **교환학생**으로 공부할 기회가 생기자 한국어 입문 수업을 **신청**했습니다. 이 수업은 기초 한국어 문법과 연장자와 대화할 때 사용해야 할 높임말을 가르칩니다. 그리고 가끔 수업에서 학생들이 몇 번은 들어봤을 만한 한국 대중 음악이나 드라마를 **활용**하기도 합니다.

“제가 들었던 노래 가사의 **의미**를 이제 **이해**할 수 있다”라고 헤르난데스는 말합니다.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**심리치료사** 되면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.

**통계**를 보면 최근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미국 현대언어협회는 2009년~2013년 한국어 수업 수강신청이 약 45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스페인어, 프랑스어, 독일어 등 다른 언어의 수강은 같은 기간 6.7% 줄어든 것으로 **집계**됐습니다.

미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**수강**하고 있는 학생은 1만2230명으로 일본어, 중국어, 아랍어 등 주요 언어 수업에 비해 아직은 그 수가 적은 편입니다. 비록 10년 전과 비교해 한국어 수업을 **진행**하는 학교 수가 약 70% 늘어났지만, 아직까지 154개 학교에서만 한국어 강의가 **개설**돼 있습니다.

“영화나 음악을 통해 한국 **대중 문화**가 미국 젊은 층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”라고 미국 현대언어협회 이사 로즈마리 펄은 말합니다.

최근 외국어 수강 신청이 줄어든 이유는 대학교들의 언어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였으며,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인문학 관련 수업 대신 취업에 **중점**을 둔 경영학이나 과학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펄은 말합니다. “제2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**취업과 승진**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어 수업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.”

이민 3세와 같은 한국계 학생이 한국어 배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인기가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하지만, 한국 문화에 심취한 **비한국계**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몇몇 학생은 2012년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탄 싸이의 ‘강남스타일’ 등 한국 댄스음악 또는 ‘내조의 여왕’과 같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. 일부는 한국 기업에 **취직**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.

UCLA는 제2외국어를 **필수 과목**에 넣고 있는데, 교수들은 매 학기 수업 **신청자** 및 **대기자** 을 보고합니다. “LA는 한국어를 공부하기에 좋은 곳이다”라고 UCLA 인류학 학과장인 데이비드 샤버그는 말합니다. “학생들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과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고, 한국 기관, 음식점, 가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.”

제인 최는 18명이 수강하는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최근 그녀는 “케빈과 흡스”라는 만화책의 그림을 이용해 한국어 특유의 복잡한 높임말에 관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. 그 외에도 **대중교통**이나 **전화 예절**에 대한 **상황**을 이용한 단어 학습도 병행했습니다.

4학년 학생 앤드류 한에게 한국어는 가정에서 **조부모님**이 사용하기에 익숙한 언어입니다. 하지만 그의 한국어 **능력**은 어린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배운 스페인어를 더 잘했습니다. “미국에서 자랐지만 제 안에 한국인의 **유산**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좀 더 배우고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.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.” 문장구조와 단어, 발음을 배우는 것이 그의 장래 희망인 **법조인**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.

기초 한국어반 수강생은 45명으로 뮤직비디오를 이용해 쉬운 문법부터 배워가고 있었습니다. 수업은 절과 절을 잇는 조사가 들어간 문장을 선생님이 칠판에 적으면 학생들이 크게 따라 읽으면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**형식**이었습니다. “음식이 싼데 맛이 없어요” “겨울인데 안 춥네요” 등의 문장이었습니다. 비한국인 학생들은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지만, 몇몇 자음 발음과 높임말을 익히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.

1학년 학생인 미셸 킹은 한국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에서 자랐지만, 슈퍼주니어와 빅뱅 등 한국 대중 음악의 팬이 됐습니다. “한국 음악은 미국 대중 음악과 다르기도 하고, 참 매력적이다.” 그녀는 현재 언어학과 동아시아 언어학을 전공하는데, 한국어를 **유창**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

그녀와 교내 K-POP 팬클럽 회원들은 최근 한인타운을 **방문**해 음반 판매점을 들르고,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,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

여전히 한국어 가사를 빨리 따라하는 것이 조금은 버겁지만, 한국어를 배워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어 기쁘다고 그녀는 말합니다.

Translation by <https://newspeppermint.com/>

Read it in English: <https://www.latimes.com/local/education/la-me-korean-language-20150401-story.html>

## 위의 뉴스 기사를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.

1. 미국 현대 언어 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 수와 다른 외국어를 신청하는 수가 어떻게 다르다고 했습니까?
2. 제인 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할까요?
3. 이 뉴스 기사에서 소개한 헤르난데스 학생과 미셸 킹 학생은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?
4. 이 기사에서 소개한 앤드류 한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 보세요.